

손흥민·케인 EPL 사상 최고 콤비



손흥민 연합뉴스 연합뉴스

1골 1도움 활약 속 리즈Utd 3-0 완파 토트넘 역대 18번째 100골 클럽에 가입 케인과 '올타임 베스트' 듀오 3골 남아

손흥민(29)과 해리 케인(28)이 새해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상 최고의 콤비로 공인받았다.

손흥민과 케인은 2020-2021시즌 EPL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2골을 합작했다. 수비적인 조제 모리뉴 감독의 전술 속에서 토트넘의 공격을 두 선수가 책임지다시피 하며 '역대급' 콤비 플레이를 펼쳐 보였다.

한 선수가 내려와서 공격을 풀어주면, 다른 선수가 이를 골로 마무리 지으며 연일 골 폭풍을 몰아쳤다.

토트넘은 2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0-2021 EPL 17라운드에서 3-0으로 완승을 했다. 이날 경기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손흥민과

케인의 물오른 '찰떡궁합'이었다.

토트넘이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케인이 오른쪽에서 침투 패스를 찢러줬고, 손흥민은 상대 수비 2명 사이를 재빠르게 뚫고 들어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들의 이번 시즌 13번째 합작 골이었다.

손흥민과 케인은 이로서 1994-1995시즌 블랙번 로버스에서 13골을 함께 만들어낸 앨런 시어러-크리스 서턴과 단일 시즌 최다 골을 합작한 듀오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아직 시즌이 절반 지난 상태에서 손-케인 듀오는 시어러-서턴 듀오와 타이기록을 세웠다.

축구 통계전문 사이트 옵타도는 "케인과 손흥민이 이번 시즌 13골을 합작

했다. 지금까지 단일 시즌에서 케인-손흥민보다 많은 골을 합작한 듀오는 없다"라고 전했다.

특히 손흥민과 케인은 이날 '콤비 플레이'로 지금까지 EPL 무대에서 통산 33골째를 기록했다.

역대 최다골 합작 기록은 프랭크 램파드-디디에 드로그바(첼시)의 36골이다. 손흥민-케인 듀오는 이 부문 역대 2위다.

손흥민과 케인이 EPL '올타임 베스트' 듀오로 공인받기까지 불과 3골만을 남겨뒀다.

전반기 페이스를 하반기에도 살려나간다면 손흥민과 케인은 후배 공격수들이 범접하기 힘든 '합작 골' 기록을 써 내려갈 전망이다.

물론 케인과 손흥민은 '각자' 기록으로도 토트넘의 역대급 공격수들이다.

그 12호골(시즌 15호골)을 작성하며 토트넘 입단 이후 253경기 만에 개인 통산 100호골을 달성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대 18번째로 '100골 클럽'에 가입했다.

제주체육 종목단체장 선거 '5부능선'

25개 종목 회장 선거 완료 나머지는 이달 내 마무리

제주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가 5부능선을 넘었다.

3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 대상 47개 종목 가운데 25개 종목단체 회장선거가 완료됐다. 나머지 22개 종목 단체의 경우는 이달 말까지 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제주도합기도협회를 제외한 준회원 종목단체 4개 종목도 이달 말까지 회장 선거 작업이 완료된다.

다음은 종목단체 회장선거 결과.

- ▶정회원 ▷제주도검도회장 최기창 ▷도게이트불협회장 김하중 ▷도

- 골프협회장 전문수 ▷도궁도협회장 안영백 ▷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 김영만 ▷도댄스스포츠연맹 회장 최왕업 ▷도레슬링협회장 김용각 ▷도롤러스포츠연맹 회장 강성무 ▷도배구협회장 부동석 ▷도보디빌딩협회장 신소아 ▷도복싱협회장 고석용 ▷도볼링협회장 강경돈 ▷도산악연맹 회장 양봉훈 ▷도수영연맹 회장 변동업 ▷도씨름협회장 강경훈 ▷도우슈협회장 김승현 ▷도유도회장 강만순 ▷도철인3총협회장 조남식 ▷도체조협회장 강창용 ▷도축구협회장 윤일 ▷도카누연맹 회장 김상갑 ▷도테니스협회장 오재운 ▷도파라크로협회장 장공순 ▷도하키협회장 안은주 ▷도핸드볼협회장 한경훈 ▶준회원 ▷도합기도협회장 강성훈.

송은범기자 seb119@halla.com

도쿄 올림픽 D-200... 태극전사 구슬땀

새해 인사 영상 공개 "종합 10위 이내 목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시계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7개월 앞에 두고 빠르게 돌아간다.

4일 도쿄올림픽 개막이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여파로 1년 미뤄진 도쿄올림픽이 올해엔 정상 개최될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태극전사들은 구슬땀을 쏟아내며 묵묵히 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올림픽이 이미 한 차례 연기된 터라 더 늘릴 것도 없다.

대한체육회는 코로나19로 선수촌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재 입촌 훈련 중인 기계체조, 수영, 유도, 펜싱 종목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도쿄올림픽을 앞둔 각오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담아 2021년 첫 날 공개했다.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3월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뒤 선수촌이 잠정 운영 중단에 들어가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급자리를 떠났다가 지난해 11월

에야 진천선수촌에 입촌했다.

신치용 진천선수촌 총장은 "아직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세계 예선 일정이 많이 남았다"며 "일정에 맞춰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현재 훈련 분위기를 전했다.

신 총장은 "해외 전지 훈련이 어렵기에 국군체육부대와 협력해 파트너 훈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인생을 건 승부처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의 성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신 총장은 "일본과 (메달 경쟁에서) 겹치는 종목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 7~8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10위 이내 입상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각오를 보였다.

남자 기계체조 도마의 비밀 병기인 신재환(23)은 "첫 올림픽인 만큼 남들보다 노력하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준비 중"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여자 기계체조 도마 간판인 여서정(19)도 "올림픽이 1년 미뤄졌지만, 그만큼 더 준비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 김서영(27)은 "도쿄올림픽에서 내 기록을 깨는 게 목표"라며 "아쉬움 없도록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했다.

한국 남자 수영의 새 희망으로 자리매김한 황선우(18)도 "올림픽 개막이 7개월 남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전했다.

일본의 국기(國技) 격인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각오는 더욱 남달랐다.

남자 90kg급의곽동한(29)은 "일본에서 열리는 만큼 각오를 다져서 금메달을 꼭 따겠다"라고 의욕을 불태웠다.

남자 100kg급 조구함(29)은 "일본의 중심 도쿄에서 한판승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올림픽 효자 종목 펜싱의 여자 간판 김지연(33)은 "마지막 올림픽"이라며 "런던 대회 때만큼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태극전사들은 국민들에게 많은 응원을 당부하고,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겪은 만큼 모두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로만 2021년이 가득 차면 좋겠다고 새해 인사를 했다.

주전급 내야수 김하성 샌디에이고 입단 계약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은 2019년 KBO리그에서 타율 0.307, 19홈런, 104타점, 33도루를 올렸다. 출루율은 0.389, 장타율은 0.491을 기록했다.

비시즌 동안 '힘'을 키운 김하성은 2020년 타율 0.306, 30홈런, 109타점으로 활약했다. 출루율은 0.397로 올랐고, 장타율은 0.523으로 크게 향상했다.

출찍 자란 김하성은 미국프로야구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신청했고, 샌디에이고와 4+1년 최대 3900만달러에 입단 계약을 했다.

미국 CBS스포츠는 2021년 샌디에이고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며 '7번 타자 2루수' 자리에 김하성의 이름을 적었다.

힘난한 주전 경쟁을 앞두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김하성의 재능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을 '빅 리그 주전급 내야수'로 봤다. 야구분석 사이트도 김하성을 '수준 높은 내야수'로 평가했다.



슛하는 맥클러 지난 3일 경기로 인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안양 KGC 인삼공사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에서 KGC 맥클러가 LG의 서민수를 두고 슛을 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는 KGC 인삼공사가 창원 LG 세이커스를 76-66으로 격파하며 마무리했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땀과 눈물 유치원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7:00 KBS 아침 뉴스타임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KBS 아침 뉴스타임 2부 9:15 KBS 아침 뉴스타임 3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세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생안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9:40 생방송 우린집 유치원 12:25 지식채널e 14:45 도라지와 영어나라 14:45 몬터치 15:15 울리 앤 로 17:00 EBS 뉴스 17:30 시사토크 19:00 위 배어 베이스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신년 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30 팔도방상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양행에서 조선비밀수사단(재)	12:00 12 MBC 뉴스 스페셜 12:20 시크릿 주유 벌의연신 12:50 뽀롱뽀롱 친구친구 13:20 헬로키키로 글로벌 동률 뉴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이 맛에 산다 16:00 사색의 공동체 스테디 17:00 5 MBC 뉴스 17:15 좌중우돌 만국 유럽기 캠핑 인 코리아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동상이동2 나는 내운명(재) 뉴스브리핑 16:00 플렉스 NOW 제주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순간화 세상에 이별일이(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12:00 CBS뉴스종합뉴스 12:05 찬양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15 15:00 CBS 뉴스 17:05 시사토크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중대의 뉴스쇼 21:35 라디오강연 22:05 백영철의 가솔날 야위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50 가요무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리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비밀의 남자 20:30 축구야구일구 21:30 속살의사-조선비밀수사단 22:10 양행에서-조선비밀수사단 22:40 가는 길로다 1부 23:15 가는 길로다 2부	18:15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찬란한 내 인생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신년 특집 100분토론 22:55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23:30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18:50 내모세요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1부 21:30 생활의 달인 2부 22:00 펜트하우스 1부 22:40 펜트하우스 2부 23:15 동상이동2 나는 내운명 1부 23:55 동상이동2 나는 내운명 2부	KCTV 7:00 KCTV 뉴스 7:30 배워볼서 관광중국어 9:00 KCTV 뉴스 9:30 KCTV 다큐스페셜 10:30 배워볼서 관광중국어 12:30 KCTV 시청자세상 15:00 KCTV 뉴스 17:00 KCTV 뉴스 20:00 KCTV 다큐스페셜 21:00 KCTV 종합뉴스 21:50 배워볼서 관광중어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 KBS ☎ 064)740-7331 / ☎ MBC ☎ 064)740-2432 / ☎ JIBS ☎ 064)740-7800 / ☎ KCTV ☎ 064)741-7723 / ☎ 제주CBS ☎ 064) 748-7400

오늘의 운세 4일

김홍상 지단(해티)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습관이 보약. 48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60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 72년 승진. 취업 또는 상을 받을 일이 따른다. 창업, 개업은 심사숙고. 84년 동료와 용화를 하거나 협조할 일이 생긴다.

42년 문서 매개 이동에 김, 여행(출장)할 일이 생긴다. 54년 뜻대로 일의 성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66년 대립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양보와 배려. 78년 자금거래를 삼가라. 보증문제 발생. 이성 관계에 불협화음. 90년 모임이 있거나 활동이 왕성한 날. 돈 지출이 생긴다.

37년 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해가면 일이 풀린다. 49년 시비 구설이 많이 언쟁을 피하고 질투 하지 마라. 61년 재주가 많은 사람은 오늘도 끊임없이 분주하다. 73년 뜻밖에 희소식이 기다린다. 약속 시간 엄수하여 제시간에 도착이 중요하다. 85년 감정대립 또는 오해 소지가 많으니 언쟁을 조심하는 게 좋다.

43년 동료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5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적어서 속상하다. 67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정리하는 하루. 내부 일에 치중하라. 79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언쟁을 조심하라. 91년 다투면 오래가니, 즉시 화해하거나 오해 없도록 자리를 피하라.

38년 가족 모임이 구성되거나 친구모임이 있다. 차는 두고 가라. 50년 동창 모임이 있다. 상의가 필요. 63년 이사 또는 변화가 있다. 문서상 이득이 있고 재물이 생긴다. 75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87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이외의 만남은 늘 포근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44년 물건을 분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6년 적절한 규모있는 자금 지출을 하라. 과소비에 스트레스 우려. 68년 도전의식과 의욕이 강한 만큼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실행력이 필요. 80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라. 92년 노력 끝에 결실이 맺으니 일이 진전이 있고 희망도 있다.

39년 허던 일이 안 풀리면 잠시 휴식 필요. 모임도 원만. 51년 자식에 의한 애정사가 있다. 상의가 필요. 63년 이사 또는 변화가 있다. 문서상 이득이 있고 재물이 생긴다. 75년 바쁜 소식을 접하거나 초대 받을 일이 생긴다. 87년 나를 알아주고 이해하는 이외의 만남은 늘 포근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45년 아이를 위한 기도나 상담도 때론 필요하다. 57년 내 마음과 육신이 허전함을 고독으로 느낀다. 여행을 떠나라. 69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미혼자 결혼 추진 적극 임하라. 81년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93년 친절을 생활화 하라. 멀어진 다음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40년 집안 일로 외출 또는 여행을 한다. 물건 구입 시 과소비 주의. 52년 자기사업을 한다면 마무리를 잘 해야한다. 64년 인생이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많으니 필요 이상의 언쟁을 하지마라. 76년 전문직 종사 또는 여행을 창조하는 분야는 좋은 소식이다. 88년 부탁이 들어오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준다.

41년 문서에 관한 소식이 오거나 약속이 정해진다. 계약 유리. 53년 모임이 생긴다. 귀가는 늦지 말 것. 읍주는 자제. 65년 상대자와 인연이나 다툼은 피할 것. 내 자랑만큼 자금지출과 임차. 77년 부모님과 상의할 일이 생기고 기쁨도 있다. 이상 소식이 오면 만나라. 89년 유혹 낭비하는데 지출이 생긴다.

46년 물에 이상이 오거나 구설수 조심해야 한다. 58년 휴식을 취하고자 해도 내일이 산적해 있다. 집안 일에 치중하라. 70년 여행 또는 외출을 하거나 손님 방문하여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미팅이 주선되거나 친구를 축하하려 가게 된다. 패션에 초점을 맞춰라. 94년 재물의 지출이 생기거나 회 복된다.

47년 금하던 돌아가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59년 직장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고민, 자식의 문제로 걱정을 한다. 71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집착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에 경쟁은 금물. 83년 하는 일에 자신을 갖고 더 노력해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 95년 결실을 거둬들인다. 내집에 할 일이 많아진다.